

제62권(2009.11.18)

2009년산 쌀 증산에 따른 가격 및 소득 분석

김 정 호 최 익 창

요 약	1
1. 최근의 쌀 수급 동향	3
2. 2009년산 쌀 생산 증가에 따른 가격 전망	5
3. 2009년산 벼 재배농가의 소득 분석	10
4. 분석 결과의 시사점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용 문의: **김정호** 선임연구위원 02-3299-4221 jhkim@krei.re.kr
자료 문의: **이성규** (정보플라자) 02-3299-4213 sklee@krei.re.kr

- 「KREI 농정연구속보」는 정책 담당자, 농업인, 연구자 등 수요자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 결과를 간결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약

통계청은 11월 12일 2009년산 쌀 생산량이 491만 6천 톤으로 전년보다 7만 3천 톤이 증가하였으며, 10a당 수량은 534kg으로 평년 단수(496kg)보다 무려 38kg이나 많은 것으로 발표하였다. 특히 금년 쌀 단수는 생산량 통계가 작성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쌀 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2008년 수확기 산지 쌀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단경기까지 가격 약세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연유로 금년 수확기의 쌀값 하락이 우려되던 터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에 작년산 10만 톤을 시장격리하였으며, 9.15작황이 발표되면서 평년작(457만 톤) 이상의 증산이 예상되자 햅쌀 11만 톤 시장격리, 그리고 11.12일 생산량 확정치가 발표됨에 따라 추가로 23만 톤을 매입하여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쌀 수급 모형을 이용하여 금년 수확기(11~12월) 산지 쌀 가격을 예측한 결과 정곡 80kg당 14만원~14만 4천원이 될 전망이다. 이는 2008년산 수확기 가격대비 12% 정도 하락한 수준이고, 2007년보다는 약 6%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11만 톤을 시장격리할 경우, 수확기 산지 쌀 가격은 14만 1천원~14만 5천원/80kg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추가로 23만 톤을 매입하면 14만 5천원~14만 9천원/80kg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쌀 가격은 다소 하락하지만 단수 증가로 직불금 포함 시 10a당 쌀 소득은 65만 4천원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가 11만 톤 시장격리 시 직불금을 포함한 10a당 소득은 65만 6천원, 추가 23만 톤 매입시는 65만 9천원으로 작년 소득보다는 6.4% 적지만 2007년보다는 12.7%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쌀 재고는 2008양곡연도 말에 소비량 대비 14.5%로서 적정 수준(FAO 기준 16~17%)에 미달하였으나, 금년 대풍으로 2010년에는 20% 이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인 증산을 낙관할 수는 없으며, 갑작스런 흉작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적정한 생산기반과 재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최근의 쌀 수급 동향

최근 들어 우리나라 쌀 시장은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쌀 생산은 안정적인데 소비는 빠르게 감소하여 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게다가 의무수입량(MMA)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00년 이후의 통계 수치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양곡연도¹ 기준으로 벼 재배면적은 연평균 1% 내외로 완만하게 감소하여 2009년에 92만 4천ha를 나타냈다. 2001년에 논농업직접지불제가 도입되고 2005년에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로 개편되면서 벼농사의 소득이 안정되어 재배면적 감소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0a당 수량도 매우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단수 500kg 이상의 장려품종 보급이 늘어나고 재배기술도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금년의 10a당 수량은 534kg으로 최근의 평년작²(496kg)보다 무려 38kg이나 많아 생산량 통계가 작성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벼 낱알이 형성되는 시기(7월중)에 장마가 있었으나 이후 수확기까지 생육 전반에 걸쳐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포기당 이삭 수가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낱알도 충실하게 영글었고, 특히 작년에 이어 태풍 피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표 1. 연도별 생산량 및 재배면적 추이

	평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년비(%)	평년비(%)
생산량(천톤)	4,565	4,768	4,680	4,408	4,843	4,916	1.5	7.7
10a당수량(kg)	496	490	493	466	520	534	2.7	7.7
재배면적(천ha)	-	980	955	950	936	924	△1.2	-

자료: 통계청, 쌀생산량조사결과, 2009.

1 양곡연도: 햅쌀이 생산되는 전년 11월 1일부터 쌀 소비가 마무리 되는当年 10월 31일까지의 기간

2 평년작: 최근 5개년 중 최고와 최저 연도의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3개년치의 평균 수량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00년 이후 연평균 약 2% 정도씩 줄어 2008년에 75.8kg까지 감소하였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인당 연간 23.4kg의 쌀을 덜 먹는 셈이다. 소득 증가에 따라 육류와 곡물 가공품 등 식생활이 다양해지고 특히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대체식품³ 소비가 증가하면서 쌀 소비량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우리와 유사한 일본(61.4kg, 2007년)과 대만(47.5kg, 2007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이들 3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쌀 소비 감소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최근 10년간 소비 감소율을 보면 한국이 연평균 2.3kg 감소($\Delta 2.4\%$), 일본이 0.4kg 감소($\Delta 0.6\%$), 대만이 1.0kg 감소($\Delta 1.8\%$)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2.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증감 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소비량(kg)	93.6	88.9	87.0	83.2	82.0	80.7	78.8	76.9	75.8
전년대비 증감률(%)	-3.4	-5.0	-2.1	-4.4	-1.4	-1.6	-2.4	-2.4	-1.4

자료: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결과, 2009.

한편,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의 결과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는 쌀의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에 의무수입량(MMA)을 늘려오게 되었다. 또한 2004년에는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여 밥쌀용 수입을 허용하였으며, 그 수입량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2010년에는 MMA 물량 32만 7천 톤과 밥쌀용 9만 8천 톤을 수입하게 되었다.

표 3. 연도별 MMA 규모와 밥쌀용 시판량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MMA	%	4.40	4.79	5.19	5.58	5.98	6.38	6.78	7.17	7.57	7.96
	천톤	225.6	245.8	266.3	286.6	307.0	327.3	347.7	368.0	388.4	408.7
밥쌀용	%	10	14	18	22	26	30	30	30	30	30
	천톤	22.5	37.4	52.8	67.9	83.1	98.2	104.3	110.4	116.5	122.6

자료: WTO, 2004.

3 대체식품: 식빵, 떡, 국수, 라면, 즉석밥, 씨리얼 등

이와 같이 벼 재배면적의 증가와 연속된 풍작, MMA 물량의 증대, 소비 감소의 가속화 등으로 인하여 재고량이 누적되어 2000년 이후 적정재고 수준(17~19%)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국내 소비량의 26%인 145만 톤에 달하게 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2002년부터 국내산 쌀의 대북 원조를 추진하여 2007년까지 다섯 차례의 지원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로 쌀 재고는 2007년 양곡연도 말 기준으로 13.7%까지 하락하였으며, 이듬해인 2008년에는 조금 상승하여 14.5%를 나타냈다.

금년 2009년산 쌀의 대풍으로 2010년 재고는 20%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렇다고 쌀 재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낙관할 것만은 아니다. 돌이켜 보면, UR 타결 이후 벼 재배면적의 감소와 흉작으로 인하여 1996년도 쌀 재고량이 수요량의 5%까지 감소하여 1997년 말 외환위기 때 노심초사하게 식량안보를 우려한 경험에 있기 때문이다.

표 4. 쌀 수급 및 재고 추이

양곡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P)
공급량(천톤)	6,092	6,486	7,004	6,554	5,568	6,042	5,838	5,756	5,361	5,790
소비량(천톤)	5,114	5,151	5,557	5,630	4,718	5,210	5,008	5,061	4,671	4,975
재고량(천톤)	978	1,335	1,447	924	850	832	830	695	690	816
재고율(%)	19.1	25.9	26.0	16.4	18.0	16.6	16.6	13.7	14.8	16.4

주: 공급량=전기재고+생산+수입, 소비량=식용소비+가공용+대외지원+감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2. 2009년산 쌀 생산 증가에 따른 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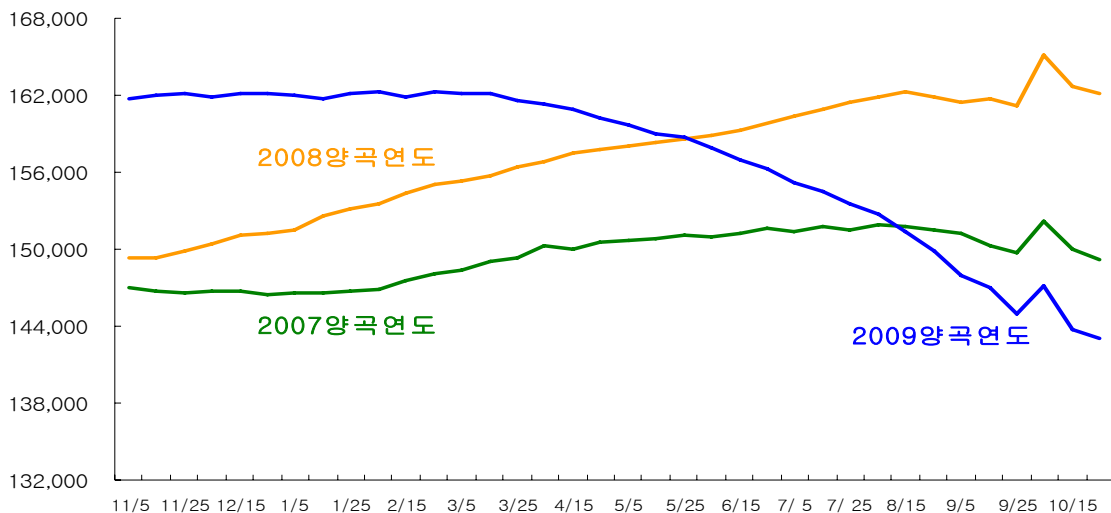
2.1. 쌀 가격 동향

2009양곡연도 산지 쌀 가격은 수확기 이후 3월 중순까지 정곡 80kg당 약 16만 2천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금년 4월 들어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산 쌀 생산이 많았던 데다가 경기침체로 쌀 판매가 부진하여 소비지 시장에서 쌀 가격 인하의 요구가 강하였지만, 농협이 높은 가격으로 벼를 매

입하였기 때문에 원가 이하로 쌀을 판매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재고 부담이 커지면서 가격을 낮추어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쌀값은 통상 수확기에 공급 증가로 낮게 형성되다가 점차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단정기에 최고 수준에 달하게 되는 추세를 보인다. 2007양곡연도와 2008양곡연도에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다만 2008년도는 수확기까지 가격 상승세가 컸다. 그러나 2009양곡연도의 산지 쌀값은 12월 이후 하락 추세가 지속되어 6월부터는 하락 폭이 커졌으며, 9월 이후부터는 2007년도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것이다.

그림 1. 전국 평균 산지 쌀(정곡 80kg) 가격 추이



자료: 농림수산물부 식량정책과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금년 수확기를 앞두고 산지 쌀 가격이 약세를 나타내면서 산지에서는 불안이 심화되었으며, 산지유통업체들은 수확기의 쌀값 하락을 우려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에 작년산 쌀 10만 톤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하여 시행하였다. 그 결과 9월 하순부터 산지 쌀값이 상승세로 반전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10월 들어 정부와 농협이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늘리면서 산지유통업체들의 매입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수확기 가격을 확정짓는 산지유통업체들

이 많아지면서 산지 벼 가격은 10월 하순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11월 5일 기준 산지 벼 가격은 4만 4,723원/40kg으로 전년 동기보다 15.2% 낮은 수준이지만, 전월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

한편, 쌀 가격은 지역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1월 5일 시세에 대해 경기도를 100으로 보면 강원도는 97.9, 충북 85.4, 충남 80.2, 전북 81.8, 전남 82.9, 경북 83.1, 경남 84.4 등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5. 전국 쌀 평균 가격

단위: 원/정곡80kg, 원/조곡40kg

		산지 정곡가격	산지 조곡가격
2008년	9월	161,484	55,185
	10월	163,299	52,554
	11월 5일	161,712	52,753
2009년	9월	146,643	46,743
	10월	144,653	44,629
	11월 5일	142,432	44,723
등락률(%) (11월 5일 기준)	전월대비	-1.5	0.2
	전년 동기대비	-11.9	-15.2

표 6. 지역별 산지 쌀 가격 변동

단위: 원/정곡80kg, 원/조곡40kg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정 곡	2008년	11월 5일	184,580	176,968	164,824	156,296	155,244	155,416	156,756	154,392
	2009년	9월	164,839	163,149	149,743	135,627	140,888	141,456	144,496	144,381
		10월	165,460	163,627	145,205	133,383	137,707	138,893	140,376	142,788
		11월 5일	165,392	161,944	141,212	132,696	135,220	137,112	137,432	139,560
	등락률(%)	전월대비	0.0	-1.0	-2.8	-0.5	-1.8	-1.3	-2.1	-2.3
	(11월 5일 기준)	전년동기대비	-10.4	-8.5	-14.3	-15.1	-12.9	-11.8	-12.3	-9.6
조 곡	2008년	11월 5일	58,776	55,500	54,495	52,327	51,624	51,689	51,203	49,896
	2009년	9월	53,837	50,570	46,311	44,628	44,768	44,462	45,246	44,927
		10월	50,817	49,033	44,574	43,787	43,445	43,084	42,887	43,358
		11월 5일	51,601	47,025	46,253	43,875	43,252	43,126	42,486	43,606
	등락률(%)	전월대비	1.5	-4.1	3.8	0.2	-0.4	0.1	-0.9	0.6
	(11월 5일 기준)	전년동기대비	-12.2	-15.3	-15.1	-16.2	-16.2	-16.6	-17.0	-12.6

자료: 통계청.

2.2. 2010양곡연도 쌀 수급 및 가격 전망

지난 10월에 통계청의 9.15작황이 발표되면서 평년작(457만 톤) 이상의 증산이 예상되자 정부는 햅쌀 11만 톤을 시장격리하기 위해 매입을 시행하였으며, 이어 11월 12일 2009년산 쌀 생산량 확정치가 발표됨에 따라 추가로 23만 톤을 매입하여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하였다.⁴

이하에서는 우리 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의 쌀 수급 모형을 이용하여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에 따른 쌀 가격 및 소득의 변화를 분석한다.

수확기 쌀 가격은 생산량, 쌀 소비 감소율, 전년도 계절진폭⁵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과 같은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변동된다. 이 분석에서는 수확기(11~12월) 쌀 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2009년산 쌀 생산량은 491만 6천 톤으로 확정치를 이용하고, 계절진폭은 -4.4~-6.9(2009양곡연도 평균 계절진폭 -5.6%), 1인당 쌀 소비 감소율은 1.4~2.4% 등으로 가정하였다.

1) 2010양곡연도 수확기 쌀 가격 전망(기준치)

2009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7만 3천 톤(1.5%)이 증가한 491만 6천 톤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금년 수확기 산지 쌀 가격은 14만원~14만 4천원/80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8년산 수확기 가격에 비하면 11.3~13.7% 하락한 수준이다.

표 7. 2009년산 수확기 가격 전망

2009년산 수확기 가격 (11~12월, 원/80kg)	2008년산 동기대비 등락률 (16만 1,986원)
13만 9,836원~14만 3,702원	-11.3 ~ -13.7%

4 통계청의 쌀 생산량 조사결과는 9월 15일에 작황조사, 11월 12일에 확정치가 발표된다.

5 계절진폭: 수확기(11~12월) 가격에 대한 단경기(7~8월) 가격의 비율

2) 시장격리 시나리오에 따른 쌀 가격 전망

정부의 시장격리 방침에 따라 평년작(457만 톤)보다 생산량이 증가한 11만 톤을 정부가 매입하게 되면, 금년 수확기 산지 쌀 가격은 14만 1천원 ~ 14만 5천원/80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8년산 수확기 가격에 비하면 10.3~12.7% 하락한 수준이다.

표 8. 11만 톤 시장격리 시 수확기 가격 추정

2009년산 수확기 가격 (11~12월, 원/80kg)	2008년산 동기대비 등락률 (16만 1,986원)
14만 1,380원~14만 5,287원	-10.3 ~ -12.7%

또, 9.15작황 조사의 생산량 추정치(468만 톤)보다 증가한 23만 톤을 추가하여 총 34만 톤을 시장격리할 경우, 금년 수확기 산지 쌀 가격은 14만 5천원~14만 9천원/80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8년산 수확기 가격에 비하면 8.2~10.6% 하락한 수준이다.

표 9. 34만 톤 시장격리 시 수확기 가격 추정

2009년산 수확기 가격 (11~12월, 원/80kg)	2008년산 동기대비 등락률 (16만 1,986원)
14만 4,783원~14만 8,780원	-8.2 ~ -10.6%

이상의 시나리오 분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부가 산지 쌀값 하락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 물량의 시장격리를 실시하는 경우에 대략 10만 톤 매입에 대하여 가격지지 효과는 1% 정도이며, 금액으로는 80kg당 1,500원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총 34만 톤의 시장격리에 따른 가격지지 효과는 비율로 3.4%이고 금액으로 80kg당 5천원 정도로 추정된다.

3. 2009년산 벼 재배농가의 소득 분석

쌀값 하락은 직접적으로 조수입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작동하여 변동직불금이 지급되므로 쌀소득 감소가 어느 정도 상쇄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의 변화를 분석한다.

소득은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2009년산 쌀 생산량에 가격 추정치를 곱하여 조수입을 산출하고, 여기에 경영비(영농자재비 + 위탁영농비 + 고용노력비 + 농지임차료)를 제하면 소득이 산출된다.

쌀 소득 분석을 위한 자료는 통계청의 2008년산 쌀 생산비 조사자료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2009년산 비용을 추정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은 분기별로 발표되는 농가구입가격지수(2005=100)를 이용하였다.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09년 2/4분기까지 발표되었기 때문에 전년 동기대비(2008년 2/4분기) 변화율을 2008년 생산비 실제치에 적용하여 2009년 생산비를 추정하였다. 농가구입가격지수를 사용한 비목은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영농광열비, 영농시설비, 노동비, 위탁영농비 등이다.

위탁영농비는 농기계 임차료 + 농업노동임금 + 유류비의 변화율('08년 2/4분기 / '09년 2/4분기)을 적용하였다. 그 밖의 생산비 비목은 소비자물가상승률 3%('08년 2/4분기 / '09년 2/4분기)를 적용하였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직불금(평균 70,000원/10a)과 쌀값 변동에 따른 변동직불금 추정치를 대입하여 계산된다.⁶

<표 10>과 <표 11>에서 2009년산 벼 재배농가의 소득을 분석해 보면, 수확기의 쌀 가격은 다소 하락하지만 변동직불금이 보전하게 되며, 여기에 생산량(단수)이 증가하므로 직불금 포함 시 10a당 소득은 65만 4천원으로 추정된다. 2009년산 쌀 소득은 2008년 쌀 소득보다는 7.1% 감소하지만 2007년에 비해서는 11.9% 증가한 수치이다.

6 2009년 고정직불금 지급액은 1ha당 농업진흥지역 논이 74만 6천원, 진흥지역 밖의 논이 59만 7천원이다.

표 10. 벼 재배농가의 10a당 쌀 소득 추정

단위: 원/10a, %

구분(년산)	2006	2007	2008	2009 (P)	09/08 증감률	09/07 증감률	09/06 증감률
단수(kg/10a)	493	466	520	534	2.7	14.6	8.3
80kg당 가격(원)	146,688	150,251	161,986	142,000	-12.3	-5.5	-3.2
10a당 조수입('A)	903,963	875,212	1,052,909	944,300	-10.3	7.9	4.5
생산비('B)	600,121	607,354	629,677	670,314	6.5	10.4	11.7
순수익(C=A-B)	303,842	267,858	423,232	273,986	-35.3	2.3	-9.8
경영비(D)	377,108	391,610	418,512	442,591	5.8	13.0	17.4
소득(E=A-D)	526,855	483,602	634,397	501,709	-20.9	3.7	-4.8
쌀 직불금(F)	103,168	101,400	70,000	152,743	118.2	50.7	25.4
- 고정	70,000	70,000	70,000	70,000	0.0	0.0	0.0
- 변동	51,833	31,351	-	82,743	-	163.9	59.6
총소득(G=E+F)	648,688	584,953	704,397	654,452	-7.1	11.9	0.9

표 11. 2009년산 시장격리에 따른 10a당 쌀 소득 추정

단위: 원/10a, %

구분(년산)	2006	2007	2008	2009(P)		
				격리없음	11만톤 격리	34만톤 격리
단수(kg/10a)	493	466	520	534		
80kg당 가격(원)	146,688	150,251	161,986	142,000	143,400	146,700
10a당 조수입('A)	903,963	875,212	1,052,909	944,300	953,610	975,555
생산비('B)	600,121	607,354	629,677	670,314	670,314	670,314
순수익(C=A-B)	303,842	267,858	423,232	273,986	283,296	305,241
경영비(D)	377,108	391,610	418,512	442,591	442,591	442,591
소득(E=A-D)	526,855	483,602	634,397	501,709	511,019	532,964
쌀 직불금(F)	121,833	101,351	70,000	152,433	144,797	126,074
- 고정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 변동	51,833	31,351	-	82,743	74,797	56,074
총소득(G=E+F)	648,688	584,953	704,397	654,452	655,816	659,037

주: 통계청 쌀 생산비 조사결과를 기초로 시산.

정부가 일정 물량을 매입하여 시장격리하게 되면 산지 쌀값의 하락 폭에 따라 쌀소득보전직접지불의 변동직불금이 연동하게 된다. 즉, 수확기에 11만 톤을 매입하여 시장격리하는 경우, 직불금을 포함한 10a당 쌀 소득은 65만 6천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8년과 비교하면 6.9% 감소하지만 2007년에 비하면 12.1%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23만 톤을 매입하여 총 34만 톤을 시장격리하는 경우, 직불금을 포함한 10a당 소득은 65만 9천원으로, 2008년에 비해서는 6.4% 감소하지만 2007년보다는 12.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4. 분석 결과의 시사점

금년 쌀 생산이 대풍작이고 단수는 생산량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를 기록하였다. 풍년농사일수록 농산물 가격이 받쳐주지 않아 수익이 하락하게 되는 ‘풍작기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009양곡연도의 쌀값이 역대절진폭을 나타냈으니 산지유통업체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수확기 쌀값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내년 단경기에 가격이 올라 계절진폭이 살아난다면 산지유통업체의 영업이익에도 도움이 된다. 농업인들도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작동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되므로 쌀값 하락을 크게 염려할 이유가 없다. 다만, 생산자로서 풍작으로 증산된 쌀의 판로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민간유통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크다. 2009년산 쌀값 하락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 물량의 시장격리를 실시하는 경우에 대략 10만 톤 매입에 따른 가격지지 효과는 1% 정도이며, 금액으로는 정곡 80kg당 1,500원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격리와 직접지불이라는 정책수단 중에서 재정지출이 적은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시장격리 시에는 매입을 대행하는 농협에 이차보전과 아울러 보관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농가는 쌀값 하락에 대한 심리적인 충격이 크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생산량 증가가 상쇄하여 소득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09년산 쌀 가운데 총 34만 톤을 매입하여 시장격리하게 되면 쌀 산지가격은 4만 3,400원/80kg 수준으로 2007년 대비 4.6% 하락하지만, 생산량이 증가하고 직불금이 포함되어 10a당 소득은 65만 9천원이 된다. 이는 2008년에 비해서는 6.4% 감소하지만 2007년보다는 12.7% 많은 수준이다. 다만,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소득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만, 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 보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쌀값 하락 시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작동하므로 시장격리에 의한 소득지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11만 톤을 시장격리하는 경우에 가격지지 효과로 10a당 소득은 1만원 정도 증가하지만 직불금을 포함하면 10a당 소득 증가는 1천원 정도에 불과하다. 34만 톤을 시장격리 하는 경우에도 직불금 미포함 시는 10a당 소득이 2~3만원 정도 증가하지만 직불금을 포함하면 10a당 3~4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유사 이래의 대풍을 기록한 2009년산 쌀에 대해 정부가 평년생산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매입하여 시장격리하는 것은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시장실패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의 신뢰가 관건이므로 격리된 물량을 어떠한 경우라도 시장에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표명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들어 국내 쌀 시장이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나타내면서 재고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쌀 재고는 2008양곡연도 말에 소비량 대비 14.5%로서 적정 수준(FAO 기준 16~17%)에 미달하였으나, 금년 대풍으로 2010양곡연도 말 재고는 2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쌀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낙관할 수는 없으며, 갑작스런 기후변화나 흉작 등의 유사시에 대비하여 적정한 생산기반과 재고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속보』 발행 목록

2009년

- 제62권 2009년산 쌀 증산에 따른 가격 및 소득 분석 (김정호, 최익창)
- 제61권 식물공장의 동향과 전망 (김정호)
- 제60권 일본의 정권교체와 농정전망 (김태곤)
- 제59권 최근 산지 소값 동향과 쇠고기 가격 전망 (허덕, 이정민, 이형우)
- 제58권 최근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57권 농업 및 농가경제 전망 2009~2019 (조영수, 박상미)
- 제56권 농림사업의 연령제한 실태와 개선방안 (최경환)
- 제55권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의 영향분석 (허덕, 이정민, 이형우)
- 제54권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계의 인지도 조사 결과 (김창길, 주현정)
- 제53권 국제곡물가격이 곡물가공품 가격에 미치는 파급시차 (김태훈, 김배성)

2008년

- 제52권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김동원, 박혜진)
- 제51권 미국 '2008년 농업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 (어명근)
- 제50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경제적 피해 계측 (우병준, 이형우, 황윤재, 김진년)
- 제49권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의 파급 영향과 시사점 (허덕, 이정민)
- 제48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양계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허덕, 우병준, 이형우)
- 제47권 사료가격 상승이 양돈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허덕, 김현중)
- 제46권 유가상승이 시설채소 농가에 미치는 영향 (정은미, 정학균, 김수림, 윤선희)
- 제45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김동원, 박혜진)

2007년

- 제44권 사육 여건 변화가 양돈소득에 미치는 영향 (허덕, 정민국, 김현중)
- 제43권 금년 김장철 채소 가격 및 김장 수요 전망 (박기환, 송성환)
- 제42권 해외 유기농산물 인증제도와 시사점 (신용광, 황윤재)
- 제41권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김창길, 김태영, 이상건)
- 제40권 최근 소값 동향 분석 (허덕, 송주호, 정민국, 이정민)
- 제39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김동원, 박혜진)
- 제38권 미국 정부의 2007년 농업법 제안과 시사점 (임송수)
- 제37권 기후변화협약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김창길, 김태영, 신용광)
- 제36권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 (김수석, 박석두)

2006년

- 제35권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박대식, 마상진)
- 제34권 DDA 협상 중단의 의미와 전망 (임송수)
- 제33권 유가상승과 환율하락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김병률, 김배성, 조영수, 이용호)

- 제32권 국내외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 및 인증 실태 (김창길, 김태영)
- 제31권 미국의 FTA 농산물 양허방식과 시사점 (최세균, 허주녕, 박성진)
- 제30권 농업부문 한·칠레 FTA 이행 2년의 평가 (최세균)

2005년

- 제29권 김치 안전성 파동과 김장 수요 전망 (송성환, 김연중)
- 제28권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개최와 과제 (김영훈)
- 제27권 쌀 공공비축제 도입과 수확기 시장안정 대책 방향 (박동규)
- 제26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태도 (강창용, 고육)
- 제25권 중국 위안화 절상이 국제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김배성, 최정섭)
- 제24권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배경과 주요 쟁점 (김정호)
- 제23권 한·칠레 FTA 이행 1년의 농업부문 평가 (최세균, 허주녕)
- 제22권 농업인의 의식 변화와 농정 현안에 대한 인식 (김동원, 박혜진)
- 제21권 친환경과실 소비 실태 및 전망 (김경필, 박미성)
- 제20권 독일과 프랑스 농민단체의 농정참여제도 (김수석)
- 제19권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본 2005년 북한의 농정전망 (권태진)
- 제18권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의 새로운 기회, 중국 (권오복)

2004년

- 제17권 농지제도 개편의 방향과 추진방안 (박석두, 송미령, 김수석, 김홍상)
- 제16권 쌀농가 소득·경영안정 직불제 도입과 양곡관리 제도 개편 (박동규)
- 제15권 2004년산 쌀 수급 및 가격 전망 (김명환, 김혜영)
- 제14권 쌀 협상 시한에 관한 견해 분석 (임송수)
- 제13권 국제유가 상승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이용선, 김배성, 정학균)
- 제12권 기업농의 조건: 가능성과 전망 (김정호)
- 제11권 미 광우병 발생 이후 쇠고기 소비 변화 (신승렬, 송주호, 김철민)
- 제10권 농업협상 기본골격 초안의 평가와 시사점 (임송수, 서진교, 김상현, 임소영)
- 제9권 쌀 농업의 규모 효과와 구조 정책 (김정호)
- 제8권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과 시사점 (김태곤, 정정길)
- 제7권 친환경농산물과 관행농법의 생산비 비교 (김창길, 김태영)
- 제6권 최근 가축질병 발생이 육류 소비에 미친 영향 분석 (신승렬, 송우진, 이형우)

2003년

- 제5권 수요처별 수입쌀 구매의향 전망 (이계임, 김민정)
- 제4권 농가부채문제 진단과 증장기 대응방향 (박성재, 황의식)
- 제3권 미국과 EU의 가격·소득지지정책 (김태곤)
- 제2권 유럽연합의 2003년 개혁안과 농업협상의 관계 (임송수)
- 제1권 쌀 수매제도의 소득지지효과 (김명환)